

전주, 세계적 무형유산도시로 도약

아시아·태평양 지역 30개국 무형유산 전문가들이 대한민국 무형유산의 보고인 전주에서 무형유산의 보호와 지속가능한 발전을 공동 모색한다.

전주시는 대한민국에서 가장 많은 인간문화재를 보유하고 있다. 무형유산의 보호와 전승을 위한 국가기관인 국립무형유산원까지 위치해있어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무형유산도시로 위상을 굳혀왔다.

1일 전주시에 따르면 오는 3일부터 5일까지 국립무형유산원 등 전주시 일원에서 '무형유산 보호를 통한 지속가능발전목표의 달성'을 주제로 한 '2016 아태지역 무형유산 NGO 컨퍼런스'가 개최된다.

이번 컨퍼런스는 유네스코아태무형유산센터(사무총장 허권)가 주최하고, 전북대학교 무형문화연구소, 전주문화재단, 전주시 사회적경제·도시재생지원센터, 한국전통문화전당이 공

시, 3~5일 아태지역 무형유산 NGO 컨퍼런스 개최

동으로 주관하며 문화재청과 전주시가 후원한다.

이번 컨퍼런스에는 아시아 태평양 지역 30개국 50여명의 NGO 대표 및 관계자들이 참가해 국제 문화유산 분야 단체들과 활발한 교류에 나설 예정이다.

특히 교육과 사회적 경제, 지역발전, 사회통합, 문화산업, 지속가능한 관광 등 지속가능한 발전 관련 다양한 주제 및 사례발표가 마련돼 기대를 모으고 있다.

3일간 열리는 이번 컨퍼런스의 개최식에서는 베아트리스 칼둔 유네스코 다카사무소 소장이 축사와 주제발표를 할 예정이며, 민속학 분야의 세계적인 권위자인 아미레스와르 갈라 국제 인류학시브박물관 관장이 기조발제를

맡는다.

또한, 축하공연으로 완주 참포마을 다듬이 할머니 연주단과 안동 하회별신굿 탈놀이, 전주시 다문화가정 여성 무용단 '유라시아' 등의 다채로운 공연이 펼쳐질 예정이다.

3일 오후에는 태평양 미크로네시아 연방 중 압(Yap)이라는 섬나라에 위치한 비정부기구인 와게이(Waigey) 대표가 전통 카누 제작 기술과 항해술 등 태평양의 전통지식을 청소년과 여성, 장애인 등을 대상으로 교육 및 전승하는 활동에 대한 사례를 발표한다.

국내에는 국립무형유산원과 무형유산진흥센터 등의 디자인 자문위원으로 활동중인 조기상 페노메노 대표가 참여해 전통공예를 창조적으로 계승

하는 사례에 대해 발표한다.

이밖에도 △몽골예술위원회 △삼보디아의 살아있는 예술 △부탄의 세존 재단 △사모아의 티아파파타 예술센터 △네팔의 마피구티 공예 △중앙아시아 공예지원협회 등 아태지역의 다양한 무형유산 분야 NGO들이 참여해 한국의 문화 관련 기관들과 교류할 예정이다.

김병수 전주시 전통문화과장은 "이번 컨퍼런스를 통해 무형유산의 지속가능 발전에 대한 역할을 강화하고 무형유산 NGO 활동사례를 공유함으로써 무형유산 활성화가 이루어지는 성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전주문화재단, 사회적경제·도시재생지원센터, 한국전통문화전당 등 전주의 문화와 도시재생을 담당하고 있는 기관들의 역할 강화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영재 기자



2016 공동체 한마당 개최식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2016 공동체 한마당 개최식이 1일 국립무형유산원 앞수마루 대공연장에서 열린 가운데 김승수 시장과 김명지 의장을 비롯한 참석자들이 손에 손을 잡고 개최식 축하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전북경찰, 지휘부 회의 개최

전북지방경찰청이 지난 1일 전북경찰청 대회의실에서 김재원 전북경찰청장의 주재로 '전북경찰 지휘부 회의'를 개최했다.

지방청 부장·과장 및 도내 15개 경찰서장 등 전북경찰 지휘부가 참석한 이번회의는 최근 이수선한 사회분위기를 틈타 민생 치안에 공백은 없는지 점검하고, 엄정한 공직기강 유지를 위해 마련됐다.

주요 내용은 최근 경찰관이 순직하는 사건이 발생한 '오패산 터널 총격전'을 상기시키며 불법총기 자진신고·일제단속을 연1회에서 2회로 확대하는 등 단속을 강화하라는 지침을 내렸다. 이어 총기·흉기소지, 집단폭력 등의 위험사건은 반드시 코드0으로 지정해 형사, 교통, 기동대, 헬기 등 가용경력을 총동원하여 대응하는 체계를 구축하게 했다.

김재원 전북지방경찰청장은 "최근 전통적인 범죄 외에 사재총기 등 새로운 양상의 범죄까지 출현해 사회 전반의 불안감이 높아지고 있다"며 "도민안전을 위협하고 사회질서를 어지럽히는 각종 비리와 범죄를 근절하고 도민들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우리 전북경찰에게 주어진 역할과 책임을 흔들림 없이 완수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민근 기자

구독문의 288-9700

생활용품 휴친 60대 입건

덕진경찰서 강력5팀은 지난 1일 완산구 소재 대형마트에서 180만원 상당의 의류와 생활용품을 절도한 A(65, 남)씨를 형사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29일 마트 진열대에 있는 시가 15만원 상당의 의류와 소주 2박스를 훔친 것으로 밝혀졌다. 확인결과 A씨는 이전에도 2차례에 걸쳐 165만원 상당의 의류와 생활필수품을 동일한 방식으로 절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에 신고된 사실을 몰랐던 A씨는 중노숙동 소재의 자택에 검거됐다.

/김민근 기자

남친 차 훔친 40대 女 붙잡아

전주덕진경찰서는 지난 1일 남친 친구의 차량과 휴대전화를 훔친 혐의(절도)로 A(42, 여)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4일 오후 3시에 전주 시내 한 카페에서 남친 친구 B(47)씨의 휴대폰과 SM3 차량을 훔쳐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A씨는 남친친구 B씨와 크게 다툰 뒤 이날 B씨가 일하는 카센터를 찾아 휴대전화와 차량을 훔친 것으로 드러났다.

B씨는 휴대전화와 차량이 없어진 사실을 알고 매장 내 CCTV를 통해 B씨의 범행을 확인하고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에서 A씨는 "남친친구에게 서운해서 돌려 주려고 했을 뿐 훔칠 의도는 없었다"고 진술했다.

/김영재 기자

FIFA U-20 월드컵 전주패키지 티켓 판매 개시

12월 31일까지 2017매 판매

FIFA U-20월드컵 코리아 2017 대회 조직위원회가 전주에서 열리는 FIFA U-20월드컵 개막전 등 조별예선 6경기와 16강 1경기 등 총 7경기를 1장의 카드로 관람할 수 있는 개최도시 패키지 티켓 판매에 돌입했다.

1일 전주시에 따르면 김승수 전주시장과 김명지 전주시의회 의장, 김대은 전라북도 축구협회장은 전주패키지 티켓 판매 첫날인 이날, 많은 시민들과 축구팬들의 참여를 기대하며 전주패키지 티켓 1·2·3호를 각각 구매했다.

이번에 판매되는 패키지 티켓은 대회 조직위원회가 대회 개막 D-200일을 기념해 각 도시별 예선경기와 16강 경기를 한 장의 카드로 30% 할인된 가격에 관람할 수 있도록 만든 티켓으로, 전주패키지는 전주를 대표하는 한옥마을과 구매자가 원하는 20자 이내

기념 문구를 담은 카드 형태로 발매된다.

티켓은 1등석(성인 7만7000원, 유소년 3만4000원), 2등석(성인 5만18000원, 유소년 2만5000원) 등 2종류이며, 전주패키지 티켓은 오는 12월 31일까지 2개월간 총 2017장 한정 판매될 예정이다.

전주패키지 티켓은 공식 온라인(www.FIFA.com)과 전화(1544-1555)를 통해 구입할 수 있으며, 시는 시민들의 편의를 위해 동 주민센터에서도 구매신청서를 작성할 수 있도록 접수처를 확대 운영할 계획이다.

김승수 전주시장은 이날 "전주에서 개막하는 FIFA U-20 월드컵 코리아 2017 대회가 마침내 200일 앞으로 다가왔다"면서 "전주에서 개막전과 한국팀 경기 등 볼거리가 많이 준비된 만큼, 성공적인 축제로 개최될 수 있도록 시민들의 많은 동참을 부탁드립니다"고 당부했다.

/김영재 기자

편의점 택배물품 절도범 검거

덕진경찰서 강력1팀은 1일 편의점에 침입해 택배상자를 절취한 외국인 A(58, 남)씨를 검거했다.

경찰에 따르면 피의자 A씨는 9월 29일 13시20분 경 덕진구 소재 A편의점

에 손님처럼 위장침입해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20만원 상당의 휴대폰과 무선충전기가 들어있는 택배상자를 절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추가 범죄사실이 있는지 집중 조사하고 있다.

/김민근 기자

평범한 전주시민들의 특별한 자서전 '삶의 자리를 보다' 출판기념회

평범한 전주시민 16명의 글이 모여 한 권의 자서전으로 발간됐다.

전주시립 완산도서관은 1일 도서관 강당에서 '2016 공공도서관 길 위의 인문학' 프로그램 '나만의 자서전 쓰기' 수료자 및 가족 6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삶의 자리를 보다' 출판기념회를 개최했다.

자서전 '삶의 자리를 보다'는 지난 5월부터 9월까지 완산도서관에서 40시간의 자서전 쓰기 교육을 받은 전주지역 중·장년층 16명과 교육을 담당할 박정혜 강사와 함께 자신들의 지난 삶을 떠올리며 열심히 교육을 받고 글쓰기에 매진한 끝에 결실을 맺은 것이다.

이번 자서전 쓰기 교육은 문화체육관광부가 주최하고 한국도서관협회가 주관하는 '2016 공공도서관 길 위의 인문학' 공모사업에 선정된 데 따른 것으로, 완산도서관은 일반인들이 쉽게 자신의 삶을 정리하고 자서전을 출

간하는데 목적을 두고 프로그램을 진행해왔다.

글쓰기 교육에 참여한 시민 김봉준 씨는 "나의 소박한 글이 이렇게 멋진 책으로 나와서 누구나 읽을 수 있다는 사실이 나를 설레게 한다"며 "내 글이 그 어느 누군가에게 작은 느낌이나 마냥 남을 수 있다면 행복하겠다"라고 자서전 출간 소감을 밝혔다.

전주시립도서관 관계자는 "개인의 자서전 쓰기는 자기 인생 점검은 물론이고 가족사를 공유할 수 있어 해체가 가속화되고 있는 현대 가족 구성원들 간의 소통과 바람직한 가족 공동체 문화 형성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이번에 발간된 자서전은 전라북도 지역 공공도서관 및 작은도서관에 배포, 가까운 도서관에서 만난 우리 지역 어르신들의 자서전을 통해 먼저 살아온 사람들의 삶의 지혜를 배울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영재 기자

행복한 대한민국
어름다운 선거

전라북도선거관리위원회

“ 세상을 가꾸는 노력, 당신의 정치후원금이 큰 힘이 됩니다 ”

정치후원금이란? 정당 및 국회의원의 정치활동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기탁금과 후원금 등이 있습니다

기탁금이란?

정치자금용 정당에 기부하려는 개인이 선거관리위원회에 기탁

후원금이란?

특정 국회의원을 후원하려는 개인이 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된 후원회에 기부

온라인 정치후원금센터 인터넷 검색창에서 정치후원금센터를 검색하세요

결제방법

- 신용카드 결제
- 신용카드 포인트 적립결제
- 실시간 계좌이체
- 휴대폰 요금 결제
- 간편 결제
- Kakao Pay
- PAYCO
- Paynow

신용카드 포인트로 정치후원금 기부하기

정치후원금에 대한 연말정산 세액 공제

깨끗한 정치문화 만들고 연말정산시 세액공제도 받으세요

10만원 이하: 전액 세액공제 | 10만원 초과: 정해진 기준에 따라 세액공제

1천억 원